

鄭道傳 98

芳幹 99

(以上人物들은 그 重要的 것만을 抄記했고 中國人物은 다루지 않았다).

## 7. 英雄 李成桂와 李芳遠의 人間像 (略)

## 8. 結 語

李奎報作 英雄叙事詩〈東明王〉과의 比較. 우리 叙事詩의 特徵.  
叙事詩로서의 〈龍歌〉의 評價.

(註) 本 發表는 陶南 趙潤濟博士回甲論文集에 論文化되었음.

## 龍飛御天歌의 文學的 價值評價

— 새로운 評價基準을 摸索하면서 —

鄭 炳 昱

오늘 저에게 주어진 課題를 말씀드리기 前에 順序가 약간 뒤집어 졌습니다  
마는 이번 龍歌의 綜合的인 檢討에 있어서 文學的인 面에 대한 綜合的인 報告  
를 잠시 말씀드리고서, 저의 主題로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11page에 대충 이번 Symposium에서 文學的인 面에서 어떠한 問題  
를 다룰수 있겠는가를 간단하게 整理를 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龍歌하면 누구나 다 語學面에 있어서 重要的 資料로서 다루어왔  
던 것이요 文學的인 面에 있어서는 그렇게 語學部門에서 처럼 활발하게 이것  
을 檢討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重要的 國文學史, 또는 國文學의 研究業績에서 대충 龍歌에 關係  
된 것을 추려 볼것 같으면,

첫째로 形態成立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람 李秉岐 教授의 「國文學全史」中에서  
龍歌項目에 四句二節形으로 된 民謠體로부터 龍歌의 形式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趙潤濟博士의 「韓國文學史」의 六章 3節 〈樂章의 始製〉라는  
項目에서 보면 龍歌의 形式은 中國古詩體를 模倣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金思燁教授의 「李朝時代의 歌謠研究」中에서 龍歌의 形式考의 項目에 보  
면 龍歌의 形態는 麗謠의 殘形과 李朝의 新形을 綜合한 形態이라고 되어있습  
니다.

그래서 이번 Symposium에서는 主로 詩歌의 形態를 Rhythm의 形成方法을  
中心으로하여 그 成立과 起源같은 것을 或是 觀察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때문에 李能雨教授에게 特히 Rhythm에 關係되는 問題를 付託하여서 여러분 앞에 그 業績을 보여 주실 수 있는 機會를 付託 드렸습니다.

다음은 Genre'의 問題로서 形式과 內容을 區分해서 形式은 典型的인 樂章이며 內容에 있어서는 敘事的인 內容을 갖춘 것이라는 見解를 가람 李秉岐教授와 趙教授 두 분이 發表해 오셨습니다. 가람 教授의 「國文學全史」 120p에 이와 같은 見解가 실려있고 趙博士의 見解로는 「韓國文學史」 128p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金博士는 이것을 國初의 樂歌라는 見解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國初의 樂歌와 李朝中葉의 樂歌는 따로 있는지는 모르나 다만 아무튼 國初 즉 李初의 樂歌라는 Genre로서 設定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李朝時代歌謠研究」 96頁 “國初樂歌의 形式”이라는데 이와 같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龍歌와 月印千江之曲을 國初樂歌의 特殊한 形態라고도 規定짓고 있습니다.

세째로 文學的인 價値評價에 있어서는 趙博士는 「韓國文學史」에서 文學的으로 보아서는 龍歌를 그렇게 높이 評價할 수 없다고 規定지으셨고, 金博士는 마찬가지로 「李朝時代歌謠研究」 가운데서 아까 張教授도 잠시 소개를 했으나 다만 金剛山과도 바꿀수 없는 重要한 우리들의 古典이라고 높이 評價를 해왔습니다.

다음 넷째로 漢譯詩와의 關係에 對해서 趙博士는 龍歌의 歌辭 卽 原辭보다는 漢譯詩가 먼저 되었고 龍歌歌辭는 漢譯詩보다도 뒤에 되었다고 생각해 왔고, 李秉岐教授와 金恩燁教授는 그런 것이 아니라 漢譯詩가 나중에 되었다고 言及되어 왔습니다.

作家의 問題에 있어서는 趙博士와 金教授 두 분은 「韓國文學史」 또는 「李朝時代 歌謠研究」 가운데서 國初의 儒臣들이 撰進한 것이라 하여 文獻의 記錄을 그대로 解釋하였고, 가람 李教授는 「國文學全史」에서 月印千江之曲과 龍歌가 그 表現에 있어서나 形態에 있어서 비슷하기 때문에 月印千江之曲을 御製라고 본다면 龍歌도 應當 世宗大王의 御製임에 틀림없다고 規定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龍歌를 云謂하신 분이 한결같이 音樂에 다 맞추어 樂曲으로 演奏케 했다는 것을 問題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大概 文學面에 있어서 龍歌에 關係되는 現在까지 論及된 重要한 問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形態成立을 위한 韻律에 對해서는 李能雨教授가 말씀해 주셨고 形式에 있어서는 典型的인 樂章이고 內容에 있어서는 敘事的이란 問題에 對해서는 張教授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漢譯詩와의 關係에 對해서는 오늘 아침질 姜信沆教授가 論及하셨습니다.

作家的 問題에 對해서는 아직까지 宿題로 남아 있는 것이고 마지막 樂曲에 대해서는 마지막 Schedule에 들어있는 李惠求教授께서 仔細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論議된 것 이외에 午前中에 語學面에서 許雄教授의 綜合報告에서도 잠시 言及이 되었읍니다만 應當 歷史資料 卽 麗末李初의 歷史資料로서 본 龍歌가 다시 한번 檢討될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 믿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이 龍歌에 引用된 中國의 史實과 中國의 歷史書籍에 나오는 史實과 比較해야 하는 歷史面에 있어서의 課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順序가 뒤바뀌어 罪悚합니다만 제가 文學面에 있어 왜 이 龍歌를 Symposium의 題目으로 했는가 하는 것에 對해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司會보신분께 罪悚합니다만 이것은 全般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제게 주시는 時間은 지금부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program에 文學的인 價値評價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時間안에 어느 程度 제 自身の 見解로서 龍歌를 評價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저의 오늘의 主題를 위한 論旨는 主로 過去에 龍歌를 評價해오신 분들의 方法을 빌어서 과연 그 評價方式이 옳았던 것일까하는 데서 부터 出發해서 過去業績에 對한 批判을 통해서 龍歌의 새로운 評價方式을 模索하는 程度에서 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大端히 罪悚하고 未安한 말이지만 제가 7.8年前이라고 기억합니다. 金博士의 「李朝時代 歌謠研究」라고 하는 學位論文을 批判한 일이 있었읍니다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똑같은 著書에 對한 批判이 이뤄지게 된 것을 個人的으로 未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이와 같이 批判의 對象이 된든지 또는 論議의 對象이 된다는 것은 過去에 그만큼 그분이 業績을 남겨 주셨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것이라 믿읍니다. 그분의 過去業績에 대해서는 亦是 저의로서도 높이 敬意를 表해마지 않읍니다만 所謂 Symposium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戰鬪的인 言辭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對해 誤解없길 바랍니다.

油印物에 보시는 바와 같이 金博士는 <李朝時代 歌謠研究>라는 冊의 第4節 <文學的인 價値論>이란 項에서 龍歌를 다음과 같은

첫째로 整然한 對句의 排列,

둘째로 終止詞의 使用法,

셋째로 아름다운 語彙의 驅使,

의 세가지 要件을 들어서 龍歌를 評價했던 것입니다.

첫째 整然한 二行詩(對句)의 巧妙한 排列이라는 評價를 金博士는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습니다. “아몽든 3章~109章까지에 보이는 對句의 美는 너무도 適實하고 間然함이 없어서 마치 造花의 美를 聯想케 하면서 綿綿히 이어 나가 다함이 없는 綺羅城과 같이 光彩 赫奕 燦爛 多彩하여 눈이 부실만하다.” (p.185)

즉 整然한 二行詩로써 巧妙한 對句를 排列해서 龍歌가 아주 찬란하게 빛난다고 評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果然 對句라고 하는 것이 어떤 效果를 나타내는 것인지 또는 龍歌에서 일워낸 對句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意味에서 東洋의 傳統的인 對句의 概念과 附合되는 것인지 하는 것부터 檢討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爲하여 中國의 文藝批評의 祖宗이라 불리우는 劉勰이란 사람의 「文心彫龍」에서 對句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文心彫龍」에 依하면 對句에는 네가지가 있다고 規定짓고 있습니다. 즉 同書 卷七 麗辭에,

“對句有四對, 言對・事對・反對・正對”

① “言對爲易……言對者 雙比空辭者也……凡偶辭胸臆 言對所以爲易也 是以言對爲美 貴在精巧”

② “事對爲難……事對者 並舉人驗者也……徵人之學 事對所以爲難也”

③ “反對爲優……反對者 理殊趣合者也……幽顯同志反對所以爲優也”

④ “正對爲劣……正對者事異義同者也……並貴共心正對所以爲劣也”

이렇게 規定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文心彫龍의 對句 分類方式과 거기 對한 評價가 完全히 옳은 것이냐? 하는 것부터 캐고 들어가야 하겠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시간이 없고, 또 이 方面의 學術書로서 過去에 歷史적으로 權威가 있다고 알려져 온 著書이기 때문에 一段 그것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金思燁教授가 아주 綺羅城처럼 빛난다는 對句의 形成方式이 果然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데 있어서 「文心彫龍」의 네가지 對句中에서 龍歌의 對句는 어느 것에 該當하는 것일가가 問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正對, 즉 “事物 또는 事件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正對라는 概念에 附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文心彫龍」의 評價方式인 <쉽고 어렵고 좋고 나쁘다>고 한 中에서 龍歌는 分明히 拙劣한 對句가 아닐 수 없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되는 것입니다.

「文心彫龍」의 單 項目에 보면 “두 가지 일을 서로 配合을 할 때 優劣이 고르지 못할 것 같으면 마치 駑馬와 騏驎이와 같다” (若兩事相配 而優劣不均 是驢在左 駑爲右服也)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對句를 쓰는데 한 쪽 句節과 한 쪽 句節이 均衡이 잡히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全體的인 對句로서 절

름발이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龍歌에 나오는 內容을 우리가 詳細히 檢討해볼적에 그야말로 절름발이가 아닌 똑같은 무게로 다룰 수 있는 對句가 어떤 程度 있겠느냐? 아마 이런데 까지도 캐들어가야 여기 綺羅城 처럼 빛난다고 하는 이런 評價가 可能하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文心彫龍」에서 뿐만아니라, 똑같은 中國사람으로서 現代歐羅巴의 文藝學을 工夫해서 오늘날 美國에서 中國文學을 講義하고 있는 사람의 說明의 方式을 살펴보더라도 비슷한 方式의 結論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James Y. Liu 라고 하는 사람인데 英國에서 文學工夫를 하고 現在는 Hawaii 大學에서 中國文學을 講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The Art of Chinese Poetry>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對句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對句는 中國에 있어서 重要하고도 特徵的인 詩의 裝置인 것이다. 다른 裝置와 마찬가지로 對句가 機械的으로 單語를 併置하는 式으로 타락했을 때 그것은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至善의 狀態에 있어서는 基礎的이고 對照的인 自然의 姿態에 對한 感覺을 表現할 수 있고, 또한 詩의 構造를 同時的으로 強化할 수 있다. 完全한 對句詩는 自然스러워서 人爲的이 아니며 두 줄의 詩는 날카로운 對照를 形成하면서도 무엇인가 야릇한 類似性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相反된 氣質을 가진 두 사람이 幸福하게 結婚을 한 것 같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對照的이나 그리고 얼마나 어울리느냐?”는 감탄을 내뿜는 心境으로 對句를 즐기게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句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完全한 對句詩라는 것은 아주 自然스럽다는 것, 人爲的이 아니라는 것, 또 두 줄의 詩는 날카로운 對照, 즉 한 쪽 句節과 한 쪽 句節의 날카로운 對照를 形成하면서 그가운데 어떤 類似性을 發見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對句에서 問題되는 것은 「文心彫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峇夫事或孤立 莫與相偶 是夔之一足 踳踖而行也」(어떤 事件이 孤立이 되어서 서로 짝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도 亦是 절름발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說明하고 있습니다. 要는 對照的인 것이 어울리지 않을 적에 거기서 나타나는 對句의 效吳라고 하는 것은 意味가 없는 것이라는 式으로 說明되어 있습니다.

이런 點들에 비추어 볼때 여러분들이 過去에 읽은 龍歌를 통해서 果然 하나의 對句로서 서로 均衡을 잃지않는 그러한 온전한 對句라는 것을 發見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問題點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方面에 좀더 깊은 觀察이 이뤄져서 金博士가 말한 그러한 結論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科學的인 根據를 提示해야 마땅할 것이라 봅니다.

그럼 둘째로 終止詞의 使用法에서 金博士는,

이·니·리아 말로 그 使用目的이 連綿히 想이 흘러나가 다함이 없는 表示로 想의 中斷을 막아 詩想의 連綿과 함께 王室의 前途洋洋함과, 그리고 李氏祖宗의 種種의 逸話가 모두 天命의 符兆 아님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逸話가 限없이 얼마든지 있어 이루다 形言할 수 없다는 感을 자아내게끔 하려는 意圖下에 쓰여지면서 一方은 音調上의 諧調에 對한 配慮도 다한 것이니, …… , 또 노래로써의 字數制限과 아울러 餘韻을 두는 重要한 手法도 兼했으니, 이面에 있어서도 龍歌는 成功한 作品이다. (pp. 186~7)

라고 評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리, 니」 또는 「이」니 하는 것을 우리가 于先 어떠한 性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가 問題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ㄹaim, 卽 脚韻으로서 받아 드리느냐, 또는 여기서 말하는 終止詞의 語尾로서 묶어진 어휘의 반복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應當 제기 되어야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ㄹaim으로 본다든가 또는 中國에서 말하는 所謂韻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구라파에서의 ㄹaim이라든지, 또는 中國詩에 있어서의 韻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意味 內容 보다 앞서서 그 詩의 音樂性을 더 強調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령 이것을 어떤 句節의 反復이라 칠 것 같으면 詩에 있어서의 반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 할 적에 이 반복의 수법을 많이 쓴다고 대개는 말해 왔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것을 ㄹaim이라고 볼 것 같으면 音樂性을 강조하는데 必要한 것이었고 또 이것을 reputation이라고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그 內容을 強調하는데 썼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音樂性이라든지 또는 強調라든지 하는 것과 詩想의 發展과 어떠한 關係가 있느냐가 分明히 究明되어야 면면히 끊임없이 번져나가는 「리」니 「니」니하는 어휘들이 하나의 詩語로서의 生命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김박사가 말하듯이 「리」니 「니」니하는 것이 면면한 詩想의 연속이라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事件 또는 內容과 連關이 되어야겠는데 다만 音樂性이라든지 또는 強調라든지 하는 것과는 그렇게 큰 무슨 연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셋째로 마즈막에 <아름다운 어휘를 많이 썼다>는 點에 對하여 金博士는,

우리말의 美를 이처럼 捕捉하여 藝術的으로 다룬 이 作者의 文學鑑賞眼의 높은 水準을 上記 여러 表現의 一端에서 보고도 남음이 있다. 字字 모두가 珠玉이요, 그것이 서로 부딪혀 鄒鄒한 清雅聲이 아름답게 울려나옴을 가까이 듣는다. 字列의 配合에 調和가 이루어 있고 強硬한 發音이 보이지 않으며 비단옷과 비단옷이 서로 스치는 가벼운 소리가 울리는 것이니, 華侈한 가운데 靜謐이 있고 모두 洗練된 均衡美가 光彩를 發하고 있는 것이다. (p.

189)

이렇게 評價를 하고 있습니다.

龍歌 125章에 아름다운 어휘를 많이 驅使를 했기 때문에 龍歌의 文學的인 價値를 그렇게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午前中의 報告 가운데 許雄教授의 報告에 依하면 龍歌 125章中에 나타난 어휘가 4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金烈圭教授도 指摘을 했습니까마는, 龍歌 125章中에 나타나는 우리말 어휘가 433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말로 된 詩로서 어떠한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측정하는데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金烈圭教授의 見解도 마찬가지입니다만 用言에 있어서 動詞가 그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用言中에서도 形容詞라든지 또는 수식어로서의 부사라든지 많이 나타나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으로서 우리는 龍歌의 詩로서의 價値를 어느 程度 측정하는데 중요한 통계 숫자가 아닌가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어휘의 수에 있어서 漢字語로 된 말의 數에 比해서 아주 비교 할 바가 못 될만큼 빈약하다는 것과 아울러서 거기 동원된 어휘의 品詞로 보아서 역시 詩語로서 적당한 品詞들이 어느 程度 채택이 됐느냐 하는 것으로서 아름다운 우리말의 어휘가 구사되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 낼 수가 있을것입니다. <비단과 비단이 스쳐서 낭낭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여 龍歌의 아름다움을 極口稱讚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어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面에서 찾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內容, 의미, 개념으로서의 어휘의 아름다움과, 다른 하나는 소위 音聲象徴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Onomatopoeia> 즉 音聲的인 要素가 어휘속에 내포되어 있는 意味 內容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르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뱃야미 가칠쁘려 즘갯가재 연즈니”(7章)

“오눔나래 내내웁보리”(16章)

“四海를 넌글주리여 三韓을 누물주리여”(20章)

“여트시고 쪼가피시니”(20章)

“앞은뜰 다르거늘”(24章)

“가삼겨샤매 오늘 다르리잇가”(26章)

이런 句節들을 아름다운 우리말의 어휘가 풍부하게 동원이 돼있다고 金博士는 例示하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휘들이 앞서 말한바와 같이 詩에서 동원될 수 있는 어휘로서(의미, 내용면에 있어서)어떻게 아름다우냐? 또는 의성적인,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美學的인 效果로 보아서 어떻게 아름다우냐 이러한 것이 측정되고야 아름다운 어휘가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김사엽교수가 지적한 항목을 하나하나 예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金博士의 抽象的인 說明方式以外에 좀더 具體的인 평가 방법이 없는가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句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리 사를 마자 馬厰에 드러 오거늘’까지는 거침없이 물홀으듯 史實 그대로를 꾸밈없이 펼쳐나려가다가 下句에 와서 ‘聖宗을 뵈셔 九泉에 가려 하시니’에서 哀切한 至誠을 吐露하되 婉曲하면서 女性的인 心情을 雅麗하게 그려놓았다. ‘聖宗을 뵈셔 九泉에 간다’는 表現은 이 龍歌가 그린 모든 表現中에 가장 纖細하고 柔軟한 情을 興起시키는 名句이면서 最高級에 到達한 藝術的 表現이다(p.192)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張德順교수의 발표에서도 잠시 普及이 된 바와 마찬가지로 龍歌는 그 原歌辭 그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內容을 理解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뒤에 수반되는 漢文 說明文을 기다려서 비로소 龍歌의 가사의 내용을 파악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말이 살을 맞아 마구에 들어오거늘 성종을 뵈셔 구천에 가려 하니>이것만 가지고서는 무슨 呪文을 읽는 거와 별로 다른 없을 것입니다. 즉 이것만 토막을 떼어가지고 어디다가 내 걸어 봐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特히 叙事的인 詩에 있어서는 論理的인 연결이 닿지 않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詩로서의 效果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說話的인 詩, 또는 어떠한 事實을 읊어내는 사설적인 詩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논리적인 연결이 이루어져야 詩로서의 價値가 認定 되는 것이지, 中間이 평 빠지고 이쪽 이야기에서 저쪽 이야기로 건너 뛴다며는 讀者로 하여금 苦痛밖에는 가져다 주는 것이 없는 입것니다.

마지막으로 第二章(아마 龍歌를 通讀을 하신 분들은 다 記憶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說明을 油印物 page14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漸層法의 極致를 보이는 作이며 그 順坦한 語彙의 驅使가 자칫하면 우리말의 纖細하고 多少 너절하게 되기쉬운 것임에도 不拘하고 莊重한 情調를 이르게 하나니 누구서 이것을 漢學者의 觀念的이며 抽象的인 솜씨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貶視하겠는가?”(p.188)

이렇게 說明하고 第二章를 점층법의 극치라고 規定짓고 있습니다.

金博士가 수사학에 있어서 점층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解釋을 하고 계신지에 對해서 전연 言及이 없기 때문에 分明히는 알 수 없으나 저의가 보기로는 이 第二章은 어디까지나 客觀的인 事實의 나열인 것입니다. <불휘기론 남곤 박 르매 아니릴씨 꽃도코 어름 하나니> 이것은 自然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고 作



家の 感情, 소위 Emotion 이라는 것은 별로 作用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미 기픈 므른 ㄹ마래 아니 그출씨 내히이러 바르래 ㄹ나니> 이것도 自然을 그대로 再現시킨데 不過한 것입니다. 즉 事實을 그대로 차디 차게 나열한 것이고, 거기에 作家의 어떤 感情的인 要素는 되도록이면 排除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第二章을 그와 같은 차디찬 事實의 나열로서 본다고 치더라도 第一聯에 동원된 “불휘, 나무, 꽃, 바람”과 같은 어휘들과 第二聯에서 動員된 “샘, 내, 바다”와 같은 어휘들이 가져다주는 소의 imaginative construction을 다음과 같이 分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第二章에서 作家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單純한 自然의 再現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作家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內容이 二重的으로 겹쳐져 있다고 하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效果를 나타내는데에 必要하고도 적절한 어휘들이 아주 統一的인 方式으로 잘 配列되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뿌리, 나무, 꽃이라든지 열매, 바람이라든지 하는 語彙들 中에서 바람을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않는 것, 즉 정지된 image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統一되어서 움직이는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나무” 또는 “꽃”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객관적인 對象들이고 이것들이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永遠性을 強調했다고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作家의 意圖를 表現하기 위하여 動員된 어휘로서는 대단히 적절한 어휘인 것이요 또 비교적 통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미 기픈 므른 ㄹ마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나니> 하면 그 <샘> 또는 <내>는 空間을 차지 하는 것이겠습니까만 샘에서 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時間이 必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로는 이 第二章은 第一聯에 있어서는 空間의 永遠한 것, 第二聯에 있어서는 時間의 永遠한 것,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데 必要한 어휘로서 比較的 적절한 어휘들이 동원이 돼있고, 또 그러한 永遠性이라고 하는 것은 이 作者들의 意圖를 빌릴것 같으면 神聖하다든지 또는 莊嚴하다든지 하는 그런것과 連結되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 또는 장엄한 것은 이 第二章만 가지고서는 형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第一章에 <海東六龍이 ㄴ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하는 것과, 第三章에서 <周國大王이 鬮谷애 사르샤 帝業을 여르시, 우리 始祖 慶興에 사르샤 王業을 여르시니> 하는 것과의 中間에서 비로서 장엄, 혹은 신성이라는 것이 第二章의 性格으로 살아 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第二章만 따로 떼어서 어디다 부쳐놓으면 아무도 거기서 장엄하다든지 또는 신성하다든지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自然物 또는 차디찬 事實만을 나열한 이 龍歌 第二章에서 왜 우리는 장엄이라던지 또는 영원성이라던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느냐는 問題를 잠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對해서는 앞서 든 中國人의 著書인 「文心彫龍」에서가 아니라 좀더 客觀的으로 자기네들의 文化傳統 또는 文學的인 意識과는 다른 位置에서 東洋의 文化를 解釋한 歐羅巴學者의 意見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Marcel Granet 라는 분으로 그는 프랑스의 文化人類學界에서 持히 東洋關係에서는 大端히 權威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분의 「中國古代의 祭禮와 歌謠」(Fêtes et Chansons de la Chine)라고 하는 論文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自然의 心像(image)은 傳統的인 經驗에 依하여 그것과 結付되어 있는 人間界의 事實을 間接的으로 그리고 比喩的으로 表現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論文은 持히 詩經을 연구해서 詩의 形成方式을 구라과적인 角度에서 새로운 解釋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다음과 같이 좀더 具體的으로 中國詩를 說明하고 있습니다. “詩의 主題中에 記述되어 있는 對偶는 自然法則과 社會法則과의 連帶關係를 명백히 해준다. 이로 말미암아 對偶의 威力은 생겨난다. 그 效果가 自然의 領域에 까지 도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人間의 慣習에 새로운 尊嚴性이 附與되는 것이다.” 이렇게 說明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要는 人間社會에서 일어나는 現象과 自然의 現象, 또는 社會法則과 自然의 法則, 이런 것들을 傳統的으로 東洋人들은 결부시키고자 했고, 그럼으로써 自然이라는 對象物을 人間社會에서 새로운 尊嚴性을 지닌 것으로 解釋해왔다는 主張인 것 같습니다.

이제 結論을 말씀드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金博士의 文學的인 價値를 評價한 基準을 檢討한 結果에 비추어서 불적에 金교수가 龍歌를 그야말로 美辭麗句로 極口 칭찬을 하셨는데 어떠한 基準으로서 그와 같은 評價를 했는지 하는 것이 그렇게 명백히 들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事實을 발견 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現在 우리 國文學界에서 아주 커다란 課題로서 남겨진 것은 學問이라든지 또는 歷史(文學의 歷史라든지)라고 하는 것과 愛國思想이라든지 또는 個人의 어떤 獨斷이나 感情이라는 것과는 엄격히 區分이 되어야 하겠다는 問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紹介해드린 金思燁教授의 龍歌에 對한 評價는 그분이 大端히 愛國的이고 또한 龍歌에 對하여 格外한 애착을 지닌것을 기조로해서 칭찬을 했을 따름인 것이요, 거기에 하등 學問으로서 또는 科學的인 기준을 가지고서 評價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할길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龍歌를 저 自身이 評價하는데까지는 發展시키지 못했고 다만 過去의 評價方式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더 科學的인 根據下에서 正當한 評價를 내려야 되겠다는 方向提示에서 그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려 둘 것은 우리가 龍歌를 文學的인 面에서 價値評價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 評價方式中에서 道德的인 評價, 또는 倫理的인 評價, 이러한 角度에서 밖에는 評價할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倫理的인 評價나 道德的인 評價에 있어서는 이 詩에서 불려진 모든 事實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龍歌를 통해서 表現된 생각, 또는 主張한 생각들을 現代에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式으로 價値評價를 할 것이 아니라, 龍歌의 作家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은 表現과 이와 같은 句節을 통해서 옳게 表現이 됐느냐, 이런데에 道德的인 評價가 可能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面에서 불적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龍歌의 作家들이 意圖했던 그런 國家祖宗의 永遠性이 全篇을 통해서 果然 理想的으로 또는 完全하게 들어 날 수 있었느냐에 對해서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 龍飛御天歌의 形式

—醉豐亭의 音樂을 中心으로하여—

李 惠 求

※ 本 發表는 錄音事情으로 要旨로서 代한다.

#### 1. 龍飛御天歌의 一章

##### 가. 杖鼓型

#### 醉豐亭의 杖鼓型

鼓 블	搖 휘	鞭 기론	鼓 남	鞭 곤	雙	鞭 비	鼓 르매	鞭 아니	鞭 뵈	雙 씨	鼓 곶
雙 도	鼓 크	鞭 여름	雙 하느	雙 니	雙	鼓 식	雙 미	鞭 기론	鼓 드	鞭 곶	鼓 곶
鞭 마	雙 드래	鞭 아니	鞭 그칠	鼓 씨	雙 내히	雙	搖 이러	鞭 바르러	雙 가	鞭 느	鼓 니

(餘音)

鞭 鞭 鼓 雙 雙 鞭